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손 떼라> - 2

○ ○

원문: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2/06/luxemburg.htm>

1편: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kpd&no=4588>

레닌이, 과거로 돌아가, 1919년 10월에 이렇게 썼을 때(<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공산주의자들에게 보내는 인사>), "... 권력 장악과 소비에트 공화국 건설의 순간에 볼셰비즘은 광야에 홀로 서 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 사상 중 그것과 가장 가까운 경향들에게서 최상의 부위를 그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반복하겠다. 이렇게 썼을 때, 그는 의문의 여지 없이 그녀의 가장 가까운 지지자들, 예를 들어 마흐레프스키(Markhlevsky), 제르진스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셰비키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로자 룩셈부르크의 경향 또한 염두에 두고 있었다.

레닌의 로자 룩셈부르크의 실수들을 스탈린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레닌이 그 오래된 2연시를 룩셈부르크와 관련해서 인용한 것은 우연한 일이다.

때때로 독수리는 밑으로 급강하해 닭 밑에서 날 수도 있다,
그러나 닭은 날개를 활짝 펴도 절대 하늘의 구름들 사이로 날아올 수 없다.

정확히 이것이다! 정확히 요점을 짚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스탈린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위상을 지닌 인물을 건드릴 때는 그의 악의에 찬 범속함을 뻔어대기 전에 더 조심해서 나아갔어야 했다.

<독재 문제에 대한 역사에 관계해서>(1920년 10월)라는 글에서 레닌은 1905년 혁명에 의해 이미 제시되었던 소비에트 국가와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같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와 날조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의 그런 걸출한 대표들은 즉시 실천적 경험의 중요성을 평가했고, 회의와 언론에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 나아갔다." 반면, "미래의 카우츠키주의자 유형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무능력을 피력했다."

단 몇 줄로 레닌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카우츠키에 대한 투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하며 완전한 찬사를 표한다. - 레닌 그 자신이 그것의 진실된 가치를 즉시 인정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투쟁에. 만약 스탈린에게, 장개석의 동맹이자 퍼셀[A. A. Purcell, 영-러 노조위원회의 핵심인물, 1926년 영국총파업을 파과-역자]의 전우이며 '노동자-농민당', '민주적 독재', '부르주아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것' 등등의 이론가인 스탈린에게 로자 룩셈부르크가 중도주의의 대표였다면, 레닌에게 그녀는 '날조되지 않은 마르크스주의'의 대표였다. 레닌의 펜에서 나온 이 명칭의 의미는 레닌에 대해 약간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하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깃발

나는 여기서 레닌의 저작에 대한 주석에서 다른 것들 중에 다음과 같은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발언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베른슈타인 수정주의의 전성기와 입각주의(밀레랑)의 후반기 중에, 룩셈부르크는 독일 당의 좌익에 서서 이 조류에 대한 단호한 싸움을 이끌었다 ... 1907년에 그녀는 러시아사회민주당의 런던 대회에 폴란드리투아니아사회민주당 대의원으로 참여해 러시아 혁명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문제들에 있어서 볼셰비키 파벌을 지지했다. 1907년부터 룩셈부르크는 전적으로 독일에서 활동했고, 좌파적-급진적 입장에 서서 중앙파와 우파에 대한 싸움을 수행했다 ... 그녀의 1919년 1월 봉기 참여는 그녀의 이름을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깃발로 만들었다."

물론, 이 주석의 저자는 내일은 그의 죄를 고백하고 레닌의 시대에는 그가 무지몽매한 상태에서 글을 썼으며, 스탈린의 시대가 되어서야 그가 완전한 계몽상태에 도달했다고 선언할 공간이 크다. 현재 이런 종류의 선언-아침, 무지, 익살이 혼합된-은 매일 모스크바 언론에 실리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물의 본성을 바꾸지 않는다, “일단 흑백이 가려지면, 도끼나 힘으로도 그것을 난도질할 수는 없다.” 그렇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깃발이 되었다!

그러나 어떻게 그리고 어쩌서 스탈린이 갑자기-그렇게 늦게서야-옛 볼셰비키의 로자 룩셈부르크에 대한 판단을 수고롭게도 수정했는가? 그의 이전의 모든 이론적 낙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최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 또한 같다. 연속 혁명(Permanent Revolution) 이론에 대항한 그의 투쟁의 논리에 그 기원이 있다. 그의 ‘역사적인’ 글에서, 스탈린은 이 이론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할당한다. 그가 말한 단 한 단어조차 새롭지 않다. 나는 오래 전에 나의 책 <연속 혁명>에서 그의 모든 주장에 답변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 문제는, 민건데, 지금 인쇄에 들어간 <러시아 혁명사>(10월 혁명)의 둘째 권에서 충분히 분명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연속 혁명의 문제는 오직 스탈린이 그것을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름에 결부시키는 한에서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곧 이 불운한 이론가가 어떻게 그 자신을 위한 치명적인 덫을 놓는지 보게 될 것이다.

멘셰비키와 볼셰비키 사이의 러시아 혁명의 동력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요약한 후에,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연속되는 실수들을 능수능란하게 몇 줄에 쑤셔넣은 후에, 스탈린은 지어낸다,

“좌파 독일 사회민주주의자들, 파르부스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이 논쟁에 대한 태도는 어땠는가? 그들은 유토피아적이고 반-멘셰비키적인 연속혁명의 도식을 지어냈다 ... 그 뒤에 이 반-멘셰비키적인 도식은 트로츠키(부분적으로는 마르토프에게도)에게 채용되어 레닌주의에 대항한 투쟁의 무기로 쓰였다 ...”

이런 것이 연속혁명 이론의 기원에 대한 예상치 못한 역사이다, 스탈린의 최신 역사 연구에 따르면 말이다. 하지만, 아아, 그 조사관은 그 자신이 이전에 쓴 박식한 저작을 참조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1925년에 이 똑같은 스탈린은 이미 라데크에 대항한 격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했다. 여기 그가 그 당시 쓴 것이 있다.

“연속혁명 이론이 ... 1905년에 로자 룩셈부르크와 트로츠키에 의해 제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는 이 이론은 파르부스와 트로츠키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 주장은 <레닌주의의 제문제>, 1926년 러시아판, 185페이지에서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외국판에도 포함되어 있길 바라자.

룩셈부르크와 연속혁명

그래서, 1925년에, 스탈린은 연속혁명론을 만드는 것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대죄를 범한 혐의에 대해 로자 룩셈부르크가 무죄라고 선고했다. “실제로는 이 이론은 파르부스와 트로츠키에 의해 제시되었다.” 1931년에, 우리는 똑같은 스탈린이 우리에게 정확히 “파르부스와 룩셈부르크 ... 그들은 유토피아적이고 반-멘셰비키적인 연속혁명의 도식을 지어냈다”고 알려주는 것을 듣게 된다. 트로츠키는 그 이론을 만든 것에 대해 무고하다. 그것은 단지 ‘채용되었을’ 뿐이다. 그에게, 그리고 동시에... 마르토프에게!!! 스탈린은 여기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는 그가 앞부분간도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적 문제들을 가지고 장난치며 흔적을 남겨둔 카드를 섞고 있는[사기치고 있는-역자] 것인가? 이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실제로는 이것도 저것도 여기에 존재한다. 스탈린주의 날조는 각각의 순간에 완전히 구체적인 개인적 이득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의식적이다. 동시에 그의 타고난 무지가 결코 그의 이론적 경향에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반의식적이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로 남는다. 그의 ‘트로츠키주의 밀수품’에 대항한 전쟁에서, 스탈린은 새로운 개인적 적과 분쟁을 빚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그는 그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그녀를 비방하며 더 나아가 그의 저속함과 불성실함의 종마의 뿔을 유통시키는 것조차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심지어 그 자신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5년 전에 말한 것에 대해 알아보는 쓸데없는 수고조차 들이지 않는다.

연속혁명의 생각들에 대한 역사의 이 새로운 변종은 무엇보다도 이전의 모든 것보다 더 매운 요리[레닌이 스탈린에 대해 한 ‘이 요리는 매운 요리밖에 만들지 못할 것’이란 말에서-역자]를 차리려는 욕구가 표현된 것이다. 마르토프가 이론적이고 역사적인 요리에 훨씬 더 얼얼한 맛을 내기 위해 머리채를 잡혀 끌려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연속혁명의 이론과 실천에 대한 마르토프의 태도는 변하지 않는 적대감이었다. 그리고 옛 시절에 그는 트로츠키의 혁명에 대한 관점은 멘셰비키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것처럼 볼셰비키에 의해서도 똑같이 거부되었다고 한번 이상 강조했었다. 하지만 여기서 이것에 대해서 논하느라 멈출 가치는 없다.

진정으로 치명적인 것은, 스탈린이 그 문제에 대해 두 개의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의견을 표현하는 데 실패한, 국제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해서 단 하나

의 주요한 의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1924년 4월에 그가 <레닌주의의 제문제>에서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결정적으로 입증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을에, 그 책의 새 판본에서 그는 그 자리를 프롤레타리아가 일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는 증명으로(즉, 노골적인 통보로) 대체했다. 그 본문의 남은 부분은 바뀌지 않은 채로 남았다. 노동자-농민당 문제에 대해서, 브레스트-리토프스크 협상에 대해서, 10월 혁명의 지도력에 대해서, 민족 문제에 대해서, 등등, 등등, 스탈린은 몇 년 사이에, 때때로 몇 달 사이에, 서로 배타적인 의견을 꾸며내어 제시한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나쁜 기억력만을 탓하는 것은 옳지 못할 것이다. 그 일에는 더 깊은 원인이 있다.

스탈린은 어떤 과학적 사고방식도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 그에게는 어떤 원칙적 기준도 없다. 그는 마치 그 문제가 바로 오늘 생겨났고 다른 모든 문제들과는 따로 독립된 것처럼 모든 문제에 접근한다. 그는 전적으로 그의 어떤 개인적 이익이 오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느냐에 따라 그 자신의 판단을 발표한다. 그 자신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는 그 모순들은 그의 속류 경험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이다. 그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지난 반세기동안의 독일, 폴란드, 그리고 국제적인 노동자 운동의 시점으로 보지 않는다. 아니다, 그녀는 그에게는 매 순간 새롭고, 게다가 고립된, 새로운 상황이 될 때마다 그녀에 대해 그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하는 인물이다. “거기에 누구인가 - 친구인가 적인가?” 틀림없는 본능이 이번엔 일국 사회주의의 이론가에게 로자 룩셈부르크의 그림자는 화해할 수 없이 그에게 적대적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 위대한 그림자가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깃발로 남아있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

룩셈부르크와 러시아 혁명

로자 룩셈부르크는 1918년 그녀의 감방에서 볼셰비키의 정책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비판을 했다. 하지만 이 그녀의 가장 잘못된 저작에도 그녀의 독수리 날개가 보인다. 여기 10월의 봉기에 대한 그녀의 일반적인 평가가 있다.

“당이 용기, 단호한 행동, 혁명적 선구안과 일관성의 영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 - 이 모든 것들이 레닌, 트로츠키, 그리고 당의 동지들에 의해 완전히 수행되었다. 모든 혁명적 명예와 행동할 능력을, 서방의 사회 민주주의가 그렇게도 결여하고 있던 것들을 볼셰비키는 보여주었다. 그들의 10월 봉기는 러시아 혁명의 진정한 구원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주의의 명예의 구원이기도 하다.”

이런 것이 중도주의의 발언일 수도 있을까?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룩셈부르크는 볼셰비키의 정책들에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농업 영역에서, 민족 자결의 구호에 대해서, 그리고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에 대해서. 이런 비판에 우리는 덧붙일 수도 있다, 그 비판은 레닌과 트로츠키를 똑같이 향하고 있다고. 그녀는 그들의 관점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는다. 그리고 로자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미묘한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예를 들어, 농업 문제에서 레닌과 연대함으로써 내가 농민에 대한 내 관점을 바꾸었다고 할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게다가 그녀는 이 관점들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1909년에 그녀의 폴란드어 저널에서 자세하게 개진했기 때문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녀의 비판을 이런 요구로 끝낸다 “볼셰비키의 정책에서는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것이 우연적인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본질적인 것으로 그녀가 생각한 것은 대중운동의 힘, 사회주의를 향한 의지였다. “이런 면에서” 그녀는 적는다 “레닌과 트로츠키와 그들의 친구들은 처음으로 세계 프롤레타리아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지금까지도 그들만이 후텐[올리히 폰 후텐, 봉건제에 대항한 기사전쟁의 지도자-역자]과 함께 외칠 수 있다, 나는 감히 그것을 행하였도다!”

그렇다. 스탈린에게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중오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로자에 대한 기억을 스탈린의 중상, 양 반구의 고용된 하수인들에게 채워진 그 중상으로부터 수호하고, 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영웅적이며, 비극적인 모습을 그것의 위풍당당하고 고무적인 힘과 함께 프롤레타리아의 젊은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더 긴급하게 할 뿐이다.

프린키포, 1932년 6월 28일